

## 호린지 절(法輪寺)

호린지 절의 창건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, 그 유래로 여겨지는 이야기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. 하나는 일본 건국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가로 활약했던 쇼토쿠 태자(574~622년)가 622년에 병에 걸리자, 아들인 야마시로노 오에 황자(643년 사망)와 손자인 유기왕이 쇼토쿠 태자의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이 절을 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다른 하나로는 승려 엔묘와 가이호시, 그리고 시모히신모쓰(한국의 백제에서 건너온) 세 명이 협력해 호린지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

호린지 절은 미이데라 절이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7세기에 완성되었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규모가 큰 절이었습니다. 13세기경부터 절이 쇠퇴하기 시작하다가 1645년에는 태풍으로 가람의 건물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, 삼층탑만은 살아남아 그 후에도 약 300년 동안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(1944년에 낙뢰를 맞아 소실되어 현재의 삼층탑은 1975년에 재건됨).

한 차례 쇠퇴한 호린지 절이지만, 18세기에 다시 부흥하면서 본당과 강당이 재건되었습니다. 오늘날 호린지 절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십일면관음상을 비롯한 수많은 보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.